

신행 365일
이제 실천이다

6월 지계(持戒)의 달

- 재가불자와 계율
- 지계 없는 수행의 위험
- 사회윤리로서의 지계
- 일상 속에서의 지계

지계없는 수행의 위험



재가불자들 사이에서 계율(戒律)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사진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조계사 불교대학의 계율강좌.

4일 오후 7시 30분 조계사 교 육관 2강의실. 조계사 총무 원 종 스님의 강의를 한 마디로 빼 놓지 않겠다는 듯, 대부분 직장 인들인 80여 명의 수강생들의 받아쓰는 손놀림이 바빠졌다. 계율(戒律)이라고 하면 출가 수 행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 기고 무시해버리기 쉬운 풍토 를 없애기 위해 조계사 불교대 학이 6주 과정으로 개설한 재 가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다.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 는 오계를 설명하면서 원종 스 님은 "수계를 하고 계율을 지킨 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꺼지

고 있다. 조계사 불교대학이 재 가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를 마 련했고, 부산 감로사는 계율과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3월 감로사불교대학 (학장 해충)을 개강했다. 조계 사 재가수행기관인 간경원은 30여 명의 재가불자들과 함께 3개월간 <범망경>을 교재로 지 계 실천을 교육한다. 삼귀의계 수계를 정제화하고 오계 수계에 앞서 정진 기간을 갖도록 제도화하는 사찰도 늘고 있다. 서울 서초동 정토법당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계를 주 지 않는다. 불교대학을 1화기 이

참다운 수행으로 불수없어

지 않는 불성(佛性)의 종자를 심 는 것과 같다"며 깨달음의 씨앗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 바로 계율이다"고 강조했다. 한 수강생이 "어떤 사람은 계 를 안 받고도 절에 열심히 다니 고 나름대로 기도나 염불 등 수 행도 열심히 한다"고 질문하자 원종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다. "지계 없이는 수행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"는 것이다. 원종 스님은 "예를 들어 미국에 가겠 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기회가 닿으면 간다. 하지만 그런 확신 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간다"며 "계를 지키는 것은 바 로 우리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 는 깨달음에 대한 확신과 씨앗 을 심는 일"이라고 강조했다. 교계에 지계(持戒) 바탕이 불

상 이수하거나 6개월간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비로소 오계 수계의 자격이 주어진다. 초발심 단계에서부터 수계의 의 미를 바로 알고, 지계의 중요성 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 해서다. 서울 쌍문동 금강사 역 시 일년에 한 번, 그것도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2박3일간의 정진 기간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만 수계의 자격을 주고 있다. 원종 스님은 "우리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보고 듣는 게 모두 장애가 될 수 있다"며 "계율이란 나를 속박시 키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 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마음 을 안정시키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장 치다"고 말했다. 권형진 기자

교계에 지계(持戒) 바탕이 불

- 6월 12일 (수)**
한국불자자연연맹이 주최한 '일 찾 집' =대전지역 불자 연예인들이 오전 10시 대전 사모니호텔 크리 스타룸에서 '교도소 방문과 독거 노인 돕기를 위한 1일 찾집' 행사 를 마련했다. 불자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다양 한 장기 자랑도 즐기며 어려운 이 웃을 돕는 보시행을 실천해 보 자.(011)659-0776
- 6월 13일 (목)**
두레생태대행 '문화답사' =두레 생태기행은 오전 10시 국립중앙박 물관 앞에서 모여, 인사동에서 열 리는 '박찬수 목조각전'과 '우승 보 도예전'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 의 향기를 맡아 보는 문화답사를

신행 캘린더

- 마련했다. 이날 행사에는 백범영 화백이 동참해 목조각과 도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줄 예정이 다. 참가비는 1만 3천원.(02)712-5812
- 6월 15일 (토)**
천불사 '대법회' =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명예교수 인환스님 초 청법회가 오전 10시 30분 천안 천 불사에서 봉행된다. '참선수행이든 염불수행이든 깨달음을 얻겠다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'고 강조하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 불교수행의 바른 방법을 찾아보자.(041)557-3223
- 육지장사 '삼천배 철야기도회'

- 경기도 양평 육지장사는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 밤 9시 삼천배 철야기도회를 봉행하고 있다. 이 기도회에는 서울 삼보사 주 지 지원스님이 지장관법, 호흡법 등 불교수행법을 직접 지도해줄 예정이다. 삼천배를 마친 사람들 에게는 호신 만다라패가 증정된 다.(02)362-6406
- 양정청소년수련관 '무료영화 상영' =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정 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 기활용을 위해 토요일 오후 3시마 다 무료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다. 6월달에는 15일 일리, 29일 '로 스트 메모리즈' 등 흥미진진한 영 화가 상영될 예정이다.(051)868-0750

터사랑 '성지순례' =부산 내소 사와 고창 선운사를 보지 않고 전 라복도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까? 아름다운 곳 문양 창살로 유명한 내소사, 선운사 동백꽃, 채석강은 전라도의 자랑. 터사랑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 번 출구에 모여 성지순례를 떠난 다. 참가비는 3만 8천원.(02)725-1234



기타문화원 '절 강좌' =절 기 차게 잘하는 법'의 저자이자 1백 만 불자 108배 1만일 결사를 이끌 고 있는 범양정사 주지 창견스님. 마야문화원은 수요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본원에서 창견스님의 강좌를 마련했다. 절 호흡법과 바 른 절의 자세를 비롯, 절의 의미 등 일상생활 속의 불교수행법을 배워 보자. 참가비는 3만원(02)722-1050

"신도회 어른들 모시는 일 중요"

우리 절 우리 신도

인천 보명사 하예자 신도회장

"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는 신 도회 내에서 어른들을 잘 모시는 일 이 참 중요합니다. 사찰과 가정은 크 게 다르지 않지요. 신도간 관계 정립 이 잘 이뤄져야 신도회의 위상도 확 립된다고 생각합니다."

인천 연수구 동촌동 건영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는 통도사 인천분 원인 보명사(주지 성민) 신도회장 하문수행(59·본명 예자) 보살은 신 도들간에도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. 이웃간에도 대화가 드문 요즘, 사찰에서 만나는 신도들마저 남같 이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. 신도 회를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싶 은 것이 문수행 보살의 바람이기도 하다. 문수행 보살의 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다른 데가 있다. 길거리에 서도 외로워 보이는 할머니를 만나 면 손을 덥석 잡을 정도로 따뜻한 마 음을 지녔다. 그래서 사찰에 찾아오 는 노보살들은 한결같이 문수행보살 을 칭찬한다. 나이트 보살들에게 문 수행 보살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자비행을 몸으로 실천하는 '우리 회 장님'이다.

회장 자리에 있음에도 불기를 두 고, 설거지에도 솔선하는 등 굽은 일 도 마다하지 않는 문수행 보살의 모 습에서 신도들은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다. 문수행 보살은 공양시간 만큼은 반드시 후원에서 신도들과 함께 일 을 한다. 음식을 만들면서 신도들과

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 겠더라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어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 한다.

지난 부처님 오신날에는 인천 연 수지역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떡과 과일 등을 직접 갖다 주고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. 이후에도 포교 활성화와 신도들의 올바른 신 행을 위해 문수행 회장은 신도회 차 원의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. 문수행 보살은 개인적으로도 남 몰래 고아원 아이를 후원해 왔다. 남 편인 김재광 거사와 함께 3년째 중 학생인 한 소년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. 김재광 거사도 보명사 신도회장을 역임했다. 부부가 같이 보명사 불교 대학 1기 졸업생이기도 하다. 93년 보명사 개원 이후 김재광 거사는 새

위험이다. 심선회는 외부 봉사활동 보다는 사중 살림 봉사활동을 주로 한다. 법회가 있는 날이면 먼저 사찰 에 나와 법회 준비를 하는 일도 그 들의 일이다.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 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느끼게 하겠 다는 각오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. 지난 3월 성민스님이 새롭게 주지 로 부임한 이후 신도회는 구치소와 복지시설 위문을 시작했다. 성민스 님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지만, 신 도회가 10여년의 역사를 통해 역량 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. 신도회가



문수행 신도회장(왼쪽에서 두번째)은 굽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내 입처럼 숭신 해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. 공양간에서 음식을 만들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.

봉사단 '심선회' 조직 청소·공양준비 소방·경찰서·복지시설 위문도 앞장

추천의 말

성민스님 보명사 주지

제가 보명사 주지로 부임한 지 이제 3개월 이 됐습니다.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 중 살림을 대부분 파악하고, 인 천 신도시인 송도지역의 포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하 문 수행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 의 도움이 컸습니다.

하 회장은 보명사가 개원한 93년부터 사찰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남편도 아주 독 실한 불자입니다. 보명사불교대 학 1기 부부졸업생이기도 하지 요. 하 회장이 소임을 맡기 전에 는 남편이 보명사 신도회장을 맡을 정도로 부부가 불심이 깊 습니다.

하 회장은 사찰 일이라면 사 소한 일이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다. 공양간에서 또는 법당에서 솔선하여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지요. 새롭게 시작한 법당 개수불사에도 적극 동참해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.

벽기도 시간이면 문수행 보살을 집 에서 보명사까지 매일 데려다 줬다. 그 인연으로 김거사도 절과 인연 맺 어 지금은 누구에게 지지않는 불심 을 자랑한다. 문수행 보살 부부는 집 에서도 매일 108배와 천수경·금강 경 독경을 하며 모범적인 불자로 생 활하고 있다.



박봉영 기자

법안명상기공지상강좌
번역국판, 72쪽, 값: 8,300원
기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.

만국역리학
신국판, 112쪽, 값: 6,300원
역의 원리를 통달해 9중 역리를 창안하고 만국인의 운 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중 운세 풀이서.

이름운세풀이
신국판, 160쪽, 값: 7,200원
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풀어보세요.

색즉시공즉시색
신국판, 112쪽, 값: 5,400원
시와 경과 사변의 조화,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.

도서출판 정화사 도서안내

21세기를 맞아 세계인이 함께 보는 **이름운세풀이**

2002 KOREA 16

1 만국역리학
3 색즉시공즉시색
6
8

●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●

칼럼집

마음의 창 (7,200원)
길따라 마음따라 (4,500원)

IMF의 고난을 창조적 자력으로 헤쳐나가도록 헌심을 바르라고 미래의 전상을 일깨워 주는 21세기 자성인의 교양서

명상시집

매달 (5,000원)
정의의 빛 (4,500원)
달마불 보라 (5,400원)
고향의 숨결 (4,500원)
사랑과 비람의 시 (4,500원)

순수한 구도의 열정으로 심신을 닦아 천만년 깨달음을 이루고 진공무유의 직용으로 중생교화를 위해 세상에 내놓은 구도의 깨달음의 명상시